

KIA 내·외야 주전 경쟁 가열된다

외야수 이창진, 부상으로 조기귀국 변수...대체 자원에 관심

최원준·문선재·김호령 등 거론...젊은 선수들 가파른 성장세



이창진

외야수 이창진의 부상 조기 귀국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KIA 타 이거즈 새 시즌, 내외야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IA 관계자는 19일 "이창진이 허리 통증으로 지난 16일 귀국했다"고 전했다. KIA 구단에 따르면 원래 허리쪽이 좋지 않았던 이창진은 상태가 악화되면서 훈련에 지장이 생겼고 이에 국내에서 치료

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이창진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 훈련 재개 시점과 개막 엔트리 합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창진을 대체할 자원을 사선이 쏠린다. 2014년 롯데에서 데뷔한 뒤 지난해 KIA의 주전 외야수로 안착한 이창진은 133경기에 출전, 타율 0.270 6홈런 48

타점 108안타를 기록했다.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이창진은 하위권으로 떨어진 KIA의 수확 중 하나로 평가됐다. 내야수 출신이지만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이창진은 새 시즌에도 KIA 야수 중 키플레이어로 꼽혔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도 이창진의 기량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번 스프링캠프 중도 이탈로 흐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창진의 대안으로는 최원준, 문선재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경찰야구단에서 제대한 김호령도 탁월한 수비센스를 바탕으로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세대교체 작업이 이뤄진데다 새 감독이 부임하며 제로베이스 경쟁체제가 시작될 KIA 내외야는 스프링캠프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구슬땀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범호가 은퇴했고 안치홍이 롯데로 떠났지만 김선빈이 잔류하며 중심을 잡았고 그 외 젊은 선수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 주전 도약에 성공한 박찬호가 유격수 혹은 3루수를 맡을 전망이다 가운데 트레이드로 영입한 장영석, 고장혁, 신인 박민 등이 3루에 도전하고 1루에는 베테랑 김주찬과 유민상, 황대인, 박진두 등이 경쟁하는 구도다. 이외에도 황윤호, 최정용, 신인 홍종표 등이 백업으로서 기회를 엿본다. 무상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백전노장 나주환은 장점인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내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외야는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가 우익수를 맡고 FA 마지막 시즌인 최형우, 그리고 명예회복이 절실한 나지완이 좌익수를 나눌 예정이다. 이창진의 부상 변수가 발생한 중견수 자리를 두고는 김호령, 최원준, 문선재의 각축전이 불가피해졌다. KIA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연습경기 모드로 전환, 실전을 통한 육색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류현진 가세 했지만 토론토 선발진, 구속은 개선 이뤄지지 않았다”

“류현진이 가세했지만 토론토 선발진의 스피드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제이스저널이 19일 (한국시간) 토론토의 올 시즌 선발진에 내린 평가다. 제이스저널은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에서 구속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류현진 등이 가세한 토론토 선발진을 분석했다. 토론토는 올 시즌을 앞두고 FA 류현진과 4년 총액 8000만달러에 계약하는 등 선발투수들을 대거 보강했다. 테너 로어크, 야마구치, 제이스 앤더슨 등이 새롭게 토론토 유니폼을 입은 선발 자원들이다. 제이스저널은 먼저 류현진에 대해 “효과적인 레퍼토리를 보유했

지만 패스트볼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2019년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패스트볼 90.7마일, 싱커 90.1마일, 커터 87마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인업에 의존하는 류현진은 마르코 에스트라다의 왼손 상위 버전”이라고 류현진을 에스트라다와 비교했다. 에스트라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토론토에서 뛴 우완 투수로 2019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이적했다. 2015년 13승8패 평균자책점 3.13이 커리어하이인 선수다. 류현진은 물론 로어크와 야마구치, 앤더슨 역시 강속구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구단마다 선발진에 강속구 투수가 포함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



합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제이스저널은 “현재 베테랑 선발진은 상대 타자들을 구속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며

“잠정에 덜 의존할 때 경기를 더 잘 풀 수 있다. 재능, 경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토론토 선발진은 2020년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성용 뒷이야기 낮은 자세로 친정 찾은 영웅은 낙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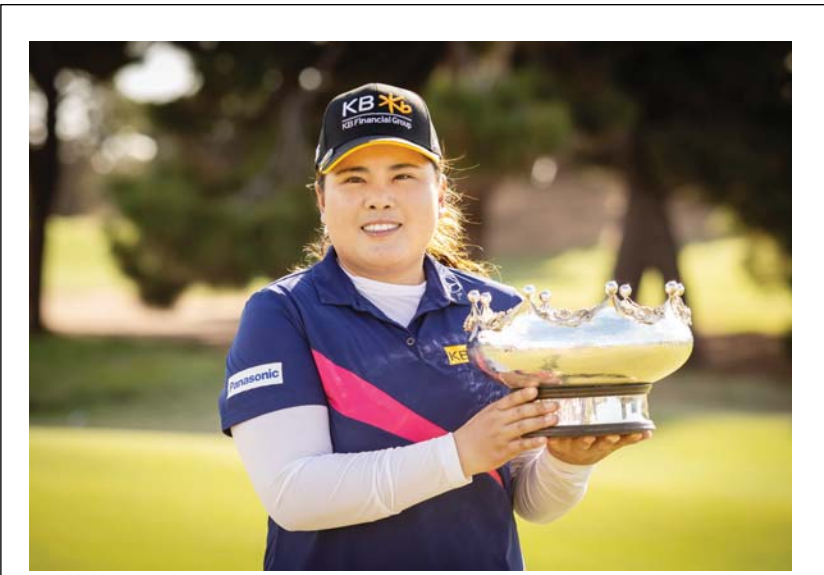
3년 만에 아시아 클럽 대항전 무대로 복귀하는 FC서울의 1차전 상대 멜버른 빅토리의 키를로스 페레스 살바추아 감독과 수비수 제임스 도나치는 경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서울전과 상관없는 질문을 받았다. 최근 K리그 유전이 활발되면서 호주를 비롯해 다양한 리그로의 진출설이 나돌고 있는 기성용 상황을 거론하면서 멜버른은 영입 의지가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살바추아 감독은 특별한 언급 없이 미소만 지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이었다. 대신 마이크를 잡은 도나치는 “감독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겠으나 멜버른 입장에서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성용이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든 호주든, 그를 영입하는 클럽은 아주 운이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기성용의 가치를 알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로 평가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8시즌



동안 정규리그 기준 187경기를 뛰었고 각종 대회 출전을 다 합치면 220경기를 훌쩍 넘기는 31세 미드필더라면 여전히 상품 가치는 높다. 직접적인 오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인 ‘C2글로벌’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스페인의 우에스카(2부리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성용을 원하고 있다. 우에스카는 우리가 도장을 찍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 (우에스카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팀도 있다. 선수와 함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K리그 컴백을 타진하던 기성용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던 ‘친정’ FC서울의 반응과 대우에 크게 낙담했다. 한국 축구와 K리그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복귀를 결심했는데, 돌아온 것은 환대가 아닌 천덕꾸러기 취급이었다.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에 가깝다. 돈이 협상 결렬의 핵심은 아니라고 서울도 기성용 측도 말하지만, 사실 대우도 문제였다. 한 관계자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FC서울의 제시 금액은 8억원 기량이지만 그것은 양측

의 협상을 통해 올라간 금액이다. 처음 서울이 내린 금액은 그보다도 적었다”고 전했다. 2019년도 국내선수 연봉왕은 전북의 김진수로 14억3500만원이었고 불혹을 넘긴 이동국도 10억 원이상을 받았다. 사실 기성용은 서울이 제시한 금액까지도 수고하고 받아들이려 했다는 게 서울 구단 관계자를 포함한 안팎 축구인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성용이 한국으로, 또 FC서울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다.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돌아오려고 했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산기만 두드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 손흥민이고 그 이전에는 박지성이었으나 그 사이 기성용이 한국 축구의 기둥으로 버티주던 때가 있었다. 대표선수로 10년 넘게 뛰면서 그가 한국 축구에 기여한 것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라고 말한 뒤 “한국은 영웅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에 너무 부족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축구인은 “FC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K리그가 기성용을 버렸다”고 탄식했다.



순항 중인 ‘골프여제’ 흔들리는 ‘골프황제’

엇갈리는 도쿄올림픽 행보

2020년을 앞두고 ‘골프여제’ 박인비(32·KB금융그룹)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도쿄 올림픽 출전 의지에 강하게 드러냈다. 2020년 시즌에 돌입한 지 약 한 달 만에 지난 가운데 여제와 황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년 시즌을 평소보다 일찍 시작한 박인비는 올림픽 출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4년 만에 1월부터 시즌을 시작한 박인비는 현재까지 열린 4개 대회에 모두 출전,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이후 2개 대회에서 연속 컷탈락하며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지난 16일 호주여자오픈에서 정상에 등극, 1년 11개월 만에 LPGA 우승 트로피 추가에 성공했다. 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오른 박인비는 세계랭킹 11위로 순위가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1위 고진영(25·하이트진로), 3위 박성현(27·솔레이), 6위 김세영(27·미래에셋), 9위 이정은(24·대방건설)에 이어 5번째 순위다.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선수는 국가당 4명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선수 중 1명만 더 제치면 박인비는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 스윙 일정이 취소되면서 박인비는 17일 귀국해 국내에서 재충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3월 19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리는 파운더스컵부터 다시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반면 우즈는 고전 중이다.

2020년을 세계랭킹 6위, 미국 선수 중 4위로 시작했던 우즈다. 그러나 약 한 달 만에 지난 사이 세계랭킹은 9위가 됐고 미국 선수 중에서도 6위로 밀려나 올림픽 출전권에서 벗어났다. 우즈는 2020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공동 9위를 마크했다.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오랜 만에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것치고는 좋은 성과였다.

우즈는 지난 주 자신이 주최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 첫날 전반 라운드에서는 4타를 줄이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라운드부터 최종일까지 부진이 계속됐다. 결국 우즈는 11오버파 295타로 컷통과 선수 중 최하위인 68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즈가 PGA 투어 대회를 최하위로 마친 것은 이번이 2번째(2015년 메모리얼 토너먼트)다.

우즈는 대회를 마친 뒤 “그냥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다음 주 쉬기 때문에 훈련 등 여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우즈가 PGA 투어를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즈는 최근 체중이 줄었고 이런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골프닷컴 등에 따르면 우즈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체중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라며 단백질 셰이크 및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중을 불리겠다고 밝혔다. 우즈는 이번 주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을 건너 뛴다. 3월에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4월에는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등 굵직한 대회가 이어진다. 우즈는 휴식 기간 동안 재정보에 나선 뒤 3월부터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친선경기서 풀타임 활약하며 골까지...입지 변할까

이승우(22·신트트라위던)가 친선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골까지 터뜨렸다. 신트트라위던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벨기에 2부리그 선두 KVC 베스테를로와 치른 비공식 친선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이날 이승우는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선발 11명 중 6명을 교체한 가운데 이승우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33분 쐐기골을 넣어 팀 승리를 도왔다.

이승우는 최근 벨기에 퍼스트디비전A에서 두 경기 연속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은 하지 못했다. 이날 친선전 골 맛을 본 이승우의 입지가 변할지 관심이이다. 이승우는 지난해 8월 말 이탈리아 세리에A를 떠나 벨기에 무대로 입성했지만 4개월여간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바슬라트-베베런전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5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다.